

# 조선후기 충청도 군사지휘체계 및 군병조직의 변화

유동호\*

- 
- I. 머리말
  - II. 충청도 방위전략 및 군사지휘체계의 변화
    - 1.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과 방위전략의 변화
    - 2. 군사지휘체계의 변화와 속읍
  - III. 충청도 지방군의 주요 병종
    - 1. 조선시대 지방군 병종의 변화
    - 2. 아병, 마병, 표하군의 성격
  - IV. 맺음말
- 

## I. 머리말

조선왕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과정에서 도성이 함락당하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국토방위전략은 關防<sup>1)</sup> 중심에서 도성 방어

---

\* 충북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1) 관방이란 요충지에 험한 시설을 만들어 튼튼히 하는 것이다. 즉 도로가 모인 곳이나 험한 고갯마루 등의 요충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배치하여 외침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萬機要覽』軍政4 關防).

중심으로, 연해지역 방어 중심에서 내륙지역 방어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국토방위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충청도의 군사적·지리적 중요성이 주목받았다. 충청도는 남쪽의 왜적이 도성으로 올라오는 내륙의 길목이었으며, 도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적·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충청도 지방군의 지휘체계 및 군병조직은 내륙을 강화하고, 도성 방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최근 조선후기 충청도 지방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약간의 연구 성과가 나왔다. 충청도 鎭營들의 구조 및 기능을 究明한 연구,<sup>2)</sup> 병영의 이설배경·군사편제·재정 등을 고찰한 연구 등<sup>3)</sup>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인해 충청도의 군사지휘본부였던 병영과 실질적 군사적 기능을 하였던 진영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각 軍營의 세부적인 구조 및 운영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충청도 전체 지방군을 조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충청도 전체 지방군을 한 눈에 조망하기 위해 먼저 조선후기 충청도의 방위전략 속에서 충청도 지방군의 편제 및 지휘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조선시대 지방군 병종의 변화 속에서 조선후기 충청도 지방군의 주요병종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충청도 방위전략 및 군사지휘체계의 변화

### 1.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과 방위전략의 변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 방위전략은 관방 중심에서 도성 방어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륙방어의 중요성이 제기되었

---

2) 서태원, 2004, 「조선후기 해미진영 연구」, 『역사교육』 92 ; 서태원, 2005, 「조선후기 청주진영 연구」, 『역사와 담론』 42.

3) 유동호, 2012, 「18~19세기 충청병영의 편제와 재정」, 『군사』 84 ; 유동호, 2014, 「조선후기 청주병영의 군사조직과 재정구조」, 『역사와 담론』 72.

고,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이자 내륙의 중심지인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도 한층 강조되었다. 그 결과 조선후기 충청도의 방위전략은 내륙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모습으로 변한다. 이러한 모습은 충청도 병영의 이설과정과 충청도 鎭營들의 운영방침에서 잘 드러난다.

충청병영이 조선전기 동안 연해지역이었던 해미에 위치하였던 이유는 沿邊諸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水營과는 掎角의 形勢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왜구에 대비하고자 함이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방어 전략은 대규모 전쟁 및 내륙방어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sup>5)</sup> 실제 임진왜란 초 내륙 요충지인 청주와 충주를 쉽게 내주면서 한양이 단기간에 함락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 때문에 병영과 수영을 모두 해안가에 두었던 충청도 방위체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연해지역에 치우쳐 있는 충청병영을 三南의 요충지인 청주나 충주로 이설하여 내륙 방어를 강화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sup>6)</sup> 임진왜란 이후 여러 차례 충청병영의 內地 이설이 주장되었으나 利害가 반반이라 결정하지 못하다<sup>7)</sup> 효종 2년(1651) 金堉의 ‘호서와 영남 사이에 토적이 아주 치성한데도 호서의 병사와 수사가 모두 해변에 있어서 토벌하기 어려우니, 호서와 영남의 교차점에 있는 청주로 병영을 옮기자’<sup>8)</sup>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충청병영은 이설되었다. 이러한 이설과정에서 충청도 방위전략이 해안방어보다는 내륙방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병자호란 이후 충청도 5진영 가운데 後營(충주)과 中營(청주)의 군사들은 남한산성에, 右營(공주)과 前營(홍주)의 군사들은 강화도에 예속되었다.<sup>9)</sup> 훗날 충청병사가 직접 거느릴 군사가 없을 것을 염

4) 『備邊司謄錄』 160冊, 正祖 3年 4月 27日.

5) 차용걸, 1983, 「조선후기 관방시설의 변화과정」, 『한국사론』 9, 71쪽.

6) 『宣祖實錄』 卷67, 28年 9月 2日 壬申; 『宣祖實錄』 卷70, 31年 12月 2日 癸丑; 『宣祖實錄』 卷135, 34年 3月 17日 乙卯.

7) 『孝宗實錄』 卷4, 孝宗 1年 7月 11日 壬申.

8) 『孝宗實錄』 卷7, 孝宗 2年 11月 13日 丁亥.

9) 『孝宗實錄』 卷6, 孝宗 2年 6月 3日 戊申.

려하여 중영(청주)과 후영(충주)의 군사들을 충청도로 還屬시켰으나,<sup>10)</sup> 유사시에는 충청병사가 중영(청주)의 군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의 방어를 돕도록 하였다.<sup>11)</sup>

결국 조선후기 충청도 방위전략은 내륙을 통해 남쪽에서 도성으로 올라오는 왜적들을 방어하고, 수도외곽의 防禦處를 수호하는 것이었다.<sup>12)</sup>

## 2. 군사지휘체계의 변화와 속읍

충청도 방위전략이 연해지역 방어에서 내륙방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충청도 지방군의 편제 및 지휘체계도 이에 맞게 변화한다.

조선전기 충청도 지방군의 편제 및 지휘체계는 鎭管體制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세조 3년(1457)에 구축된 진관체제는 전국의 각 읍을 군사적 거점으로 편성하는 체계였다. 한 지역이 외적에게 점령당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항전할 수 있도록 한 방위체제였는데, 그 지휘체계는 主鎭의 都節制使 → 巨鎭의 僉節制使 → 諸鎭의 同僉節制使로 이루어졌다.<sup>13)</sup> 충청도 지방군 역시 진관체제에 따라 편제 및 지휘체계가 이루어졌다.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전기 충청도 지방군 편제

주진	침철제사진	동침철제사진	절제도위진
충주 해미	홍주	서천, 서산, 태안, 면천, 온양	홍주, 평택, 홍산, 덕산, 청양, 대흥, 비인, 결성, 남포, 보령, 아산, 신창, 예산, 해미, 당진
	청주	천안, 옥천	청주, 직산, 목천, 문의, 회인,

10) 『孝宗實錄』 卷7, 孝宗 2年 7月 26日 辛丑.

11) 『備邊司謄錄』 17冊, 孝宗 5年 6月 3日.

12) 유동호, 2014, 앞의 논문, 48쪽.

13) 민현구, 1983,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247~251쪽.

			청안, 진천, 보은, 영동, 황간, 청산
	공주	임천, 한산	공주, 진의, 정산, 은진, 회덕, 진잠, 연산, 이산, 부여, 석성, 연기
	충주	청풍, 단양, 괴산	충주, 연풍, 음성, 영춘, 제천

출처 : 『經國大典』 券4, 兵典.

진관체제는 16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잦은 왜변으로 인해 세승 방략 형태의 변형을 거쳐, 양란 이후 營將制를 기반으로 하는 鎭營體制로 개편되었다.<sup>14)</sup> 임진왜란 중에 정부는 東伍軍 편성과 함께 진관체제를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진관체제를 복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수령들은 일반 행정만을 담당하였고, 속오군에 대한 지휘는 把總·哨官 등에게 맡겨짐으로써 지방군 통솔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효율적으로 지방군을 지휘·통솔하기 위해 전임영장을 파견하였으나, 곧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무관의 자질 및 경험이 없는 수령의 영장 겸직은 자연히 속오군의 부실화로 연결되었다. 그러던 중 1624년 이괄의 난과 1627년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지방군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곧 인조 5년(1627) 4월『營將節目』을 작성하고, 전임영장을 파견하여 속오군을 그 휘하에 두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영장제는 다시 철폐되었다가 1654년 이후 재실행되어 『續大典』에 법적으로 고정되었다.<sup>15)</sup> 이 때 전국 46곳의 진영 가운데 13개의 진영에만 전임영장이 배치되었는데, 강원도 삼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삼도 지역이었다. 그 이유는 임란 이후 국토 방위전략

14) 조선 후기 지방군은 『紀效新書』의 속오법에 의거하여 병영 아래에 營(1영=5사)-司(1사=5초)-哨(1초=3기)-旗(1기=3대)-隊를 기본으로 부대를 편제하였다. 병사 예하의 영 단위 부대의 책임자가 영장이었고, 영장의 소재지는 영이 설치된 진관이라는 의미에서 진영이라고 했다(허선도, 1973-1974, 「제승방략 연구」, 『진단학보』 36-37, 진단학회 ; 1974, 「진관체제 복구론 연구」, 『논문집』 5, 국민대 ; 1991, 「조선시대의 영장제」, 『한국학논총』 1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5) 서태원, 1999, 『조선 후기 지방군제 연구 : 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67~77쪽.

이 남쪽에서 도성으로 올라오는 왜적을 방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충청도 역시 5진영 가운데 左營(해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임영장이 배치되었다.<sup>16)</sup> 조선후기 진영체제 하의 충청도 군영들의 편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선후기 충청도 군사편제

주진	진영(소재지)	속읍
공주 청주	진영(홍주)	서천, 임천, 한산, 보령, 청양, 정산, 비인, 남포
	좌영(해미)	대흥, 은양, 면천, 서산, 태안, 결성, 예산, 평택, 아산, 신창, 덕산, 당진
	중영(청주)	천안, 문의, 회인, 청산, 보은, 황간, 영동, 청안, 진천, 직산, 목천
	우영(공주)	옥천, 연기, 석성, 부여, 은진, 연산, 노성, 진잠, 전의, 회덕
	후영(충주)	청풍, 단양, 괴산, 제천, 영춘, 연풍, 음성

출처 : 『增補文獻備考』, 兵考 州鎮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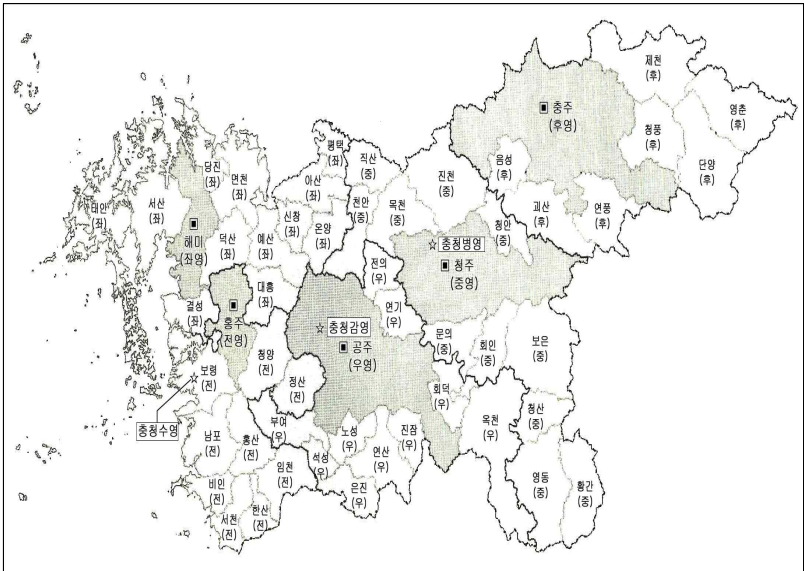
조선후기 충청도의 군사편제는 주진인 병영 아래 5진영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각 진영은 독립적인 방어단위로 기능하였다. 아울러 각 진영에는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위한 여러 속읍들이 배정되어 있었다.

후기의 충청도 진영체제를 전기의 진관체제와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주진이 충주(검병사)·해미(단병사)에서 공주(검병사)·청주(단병사)로 옮겨진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충청도 내륙지방의 방어를 강화하고, 충청도 백성들의 役과 支供의 폐단을 줄이기 위함이었다.<sup>17)</sup> 둘째 각 진관의 거진에 해당하는 첨절제사진 4곳(충주·청주·공주·홍주)이 후기에는 5곳의 진영으로 변화한 점이다.

16) 해미에도 초기에는 전임영장이 파견되었으나, 해미현의 좌영에 대한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해미현령이 겸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서태원, 2004, 앞의 논문, 135~136쪽).

17) 유동호, 2012, 앞의 논문, 195~201쪽 ; 임선빈, 2003, 「충청감영의 공주 개영과 변천」, 『충청감영 400년』, 충남발전연구원, 25~30쪽.

효종 2년(1651) 충청병영이 해미에서 청주로 이설되고, 해미에는 좌영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충청도의 진영체제는 전영-홍주, 좌영-해미, 중영-청주, 우영-공주, 후영-충주의 체계로 구축되었으며,<sup>18)</sup> 지휘체계는 충청병영(병사)-5진영(영장)-54개 속읍(各邑 수령)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다음 (그림 1)은 당시 충청도의 편제와 지휘체계를 잘 보여준다.



<그림 1> 조선후기 충청도 主鎮·鎮營·屬邑 분포

한편 조선후기 충청도 지방군의 편제 및 지휘체계의 변화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속읍의 역할이다. 속읍을 통해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관체제에서는 거진 아래의 군·현들이 제진으로서 독립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진영체제에서는 진영만이 독립적인 군사단위로서 기능을 할 뿐 나머지 군·

18) 『孝宗實錄』 卷12, 4年 2月 11日 壬申; 유동호, 2012, 앞의 논문, 202쪽.

현은 군사적 역할이 없었다.

17세기 중반 영장제가 확립될 때 전국에 46개의 진영이 설치되었다. 이 중에 13개의 진영에만 전임영장이 파견되었으며, 나머지 33개의 진영은 소재 읍의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였다. 이것은 영장제(진영체제)의 주요 운영방침은 전임영장제가 아니라 겸임영장제였음을 의미한다.

<표 3> 전국 鎭營 및 專任營將 현황

도명	진영(장) 소재지										진영수
	진영	좌영	중영	우영	후영	별진영	별좌영	별중영	별우영	별후영	
경기	광주	남양	양주	장단	죽산			수원			6
강원		철원	원주	삼척							3
황해	봉산	풍천	안악	곡산	평산			산산			6
충청	홍주	해미	청주	공주	충주						5
전라	순천	운봉	전주	나주	여산						5
경상	안동	상주	대구	진주	경주			김해			6
평안	속천	덕천	중화	순천	함종	용천	구성		가산	영원	9
함경	홍원	갑산	영흥	삼수	덕원			단천			6
계											46

출전 : 『續大典』 兵典 外官職.

어쨌든 전임·겸임 영장들은 정3품 무관의 자격으로서 관할 군현의 군병들을 독립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국 360여 개의 군현 가운데 영장을 겸임하는 33개 군현의 수령을 제외한 나머지 읍의 수령들은 군사지휘권이 없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33개를 제외한 나머지 군·현의 수령들은 유사시 자기 읍의 군사를 진영장에게 인계만 하면

임무는 끝났다. 더군다나 무기보관·군사훈련·군량조달 등의 軍務는 주로 座首의 임무<sup>19)</sup>였다. 이 때문에 수령들은 군사지휘 및 업무에 있어 제2선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후기의 속읍들은 전기의 제진들과는 달리 주진 및 진영의 경제적·군사적 지원만 하던 되었다.<sup>20)</sup>

충청도 내 각 진영의 속읍으로 지정된 군현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충청도는 좌영(해미)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임영장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속읍의 군사들은 전임영장의 지휘를 직접 받았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Ⅲ. 충청도 지방군의 주요병종

#### 1. 조선시대 지방군 병종의 변화

조선후기 충청도의 방위전략과 충청도 지방군의 지휘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각 군영의 병종도 다양화되었다. 조선전기 지방군의 병종은 처음에는 다양하게 존재하였으나, 훗날 正兵으로 단일화되었다. 鄭道傳은 중앙군은 10司 소속의 군병과 番上宿衛하는 侍衛牌로 규정하였고, 지방군은 陸守軍과 騎船軍으로 구분하였다.<sup>21)</sup> 이들은 태조 6년(1397) 병마도절제사를 폐지하고 각 鎭에 침절제사를 설치하면서 鎭軍으로 편입되었다.<sup>22)</sup> 즉 병마도절제사가 관할하는 道보다 작은 군사단

19) 김용덕, 1989, 『한국 제도사 연구』, 일조각, 267~272쪽.

20) 유동호·이석린, 2014, 「조선후기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와 군병조직」, 『군사』 93, 군사편찬위원회, 211~212쪽.

21) 鄭道傳, 『三峰集』 卷8, 朝鮮經國典 政典 軍制.

22) 당시 각 도에 설치된 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太祖實錄』 卷11, 太祖 6年 5月 21日 壬申).

- 경상도 : 합포, 강주, 영해, 동래 (4鎭)
- 전라도 : 목포, 조양, 옥구, 흥덕 (4鎭)
- 충청도 : 강성, 남포, 이산 (3鎭)
- 풍해도 : 풍주, 웅진 (2鎭)

위인 鎭을 설치하여 육수군 중 일부를 진군으로 分屬한 것이다. 그러다가 태조 7년(1407) 병마도절제사를 복설하면서 휘하에 廩料를 받는 인원을 규정하였는데, 이들이 營軍이었다.<sup>23)</sup> 결과적으로 육수군이 진군과 영군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을 합쳐 營鎭軍이라 불렀다. 영진군은 지방의 良丁 가운데 중앙의 시위패에 먼저 배속시킨 후 남은 인원으로 충원하였으며, 그들은 4개의 番으로 나누어 복무하였다.<sup>24)</sup> 『世宗實錄』 지리지를 통해 각 지역의 영진에 속해져 있었던 병종 및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조선전기 營鎭軍 종류 및 수

도명	영진명	軍官	新白丁	正軍	守城軍	留防軍	牌屬軍	鎭屬軍	助役軍	匠人	防牌軍	계
충청도	해미영	500	148		207	61						855
	순성진		58		50		300					469
	남포진		39		51	63		300				453
경상도	창원영	500			438							938
	울산진	399			40							439
	영일진	301			80							381
	동래진	300			80							380
	영해진	300			80							380
	사천진	300			49							349
전라도	강진영			498	51				163	141		853
	옥구진			300								300
	부안진			300								300
	무장진			300								300
	조양진			300								300

○ 강원도 : 삼척, 간성 (2鎭)

23) 『太祖實錄』 卷15, 太祖 7年 9月 26日 戊申.

24) 『世宗實錄』 卷31, 世宗 8年 1月 4日 己亥.

황 해 도	해주영										
	풍천진			80	300					60	440
	장연진			80	300					48	428
	용진진			80	362					60	502
	강령진			80	400					60	540

출처 : 『世宗實錄』 地理誌.

위 표를 보면 영진군 내에는 다양한 병종이 소속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영진이 해안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안에 있었던 水軍鎭과의 연계를 통해 왜적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충청도 역시 해안지역에 3개의 영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해미영, 순성진, 남포진이 그곳이다. 해미영에는 군관·신백정·수성군·유방군 등 4개 병종으로 이루어진 855명의 병력이 있었고, 순성진에는 신백정·수성군·패속군 등 3개 병종으로 이루어진 469명의 병력이 있었으며, 남포진에는 신백정·수성군·유방군·진속군 등 4개 병종으로 이루어진 453명의 병력이 있었다. 해미영의 핵심병종은 보병이었던 수성군이었으며, 순성진과 남포진의 핵심병종은 마병이었던 패속군과 진속군이었다. 이러한 충청도 영진의 배치와 병종의 구성은 왜구로부터 서해안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영진을 해안가로 전진 배치한 조치는 해적을 막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으나, 이는 내륙지역 방어에 허점을 보였다. 더군다나 영진에 배속된 병력은 그 수가 매우 적어 대규모 침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내륙방어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軍翼道 體制를 거쳐 진관체제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진관체제는 自戰自守하는 지역방위체제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충분한 군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제도였다.<sup>25)</sup> 따라서 진관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군을 재

25) 민현구, 1983, 앞의 책, 247~251쪽.

정비하여 군병 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했다. 이 때문에 실시하였던 정책이 지방군의 다양한 병종을 正兵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조선 초 지방군은 크게 시위군, 영진군, 수성군, 翼軍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총 액수는 45,849명이었다. 참고로 시위패와 영진군은 마병이고, 수성군은 보군이였다.<sup>26)</sup>

<표 5> 조선전기 지방군의 종류 및 군정 수

	시위군	영진군	익군	수성군	합계
경기도	1,713				1,713
충청도	1,974	1,766		248	3,988
경상도	2,631	3,876			6,507
전라도	1,167	2,424			3,591
황해도	2,294	2,736			5,030
강원도	2,276	25		11	2,312
평안도	2,878		14,053	789	17,720
함길도			4,472	516	4,988
합계	14,933	10,827	18,525	1,564	45,849

출처 : 『世宗實錄』地理志.

이들은 모두 세조대에 正兵으로 통합되어 진관체제 속에서 운영되었다.<sup>27)</sup> 성종 6년(1475) 병조에서 밝힌 전국적인 正兵의 총 액수는 72,105명이었다. 유방정병이 25,200명이었고, 번상정병이 약 27,600명이었으며, 자체 赴防하는 토병이 19,284명(개성부 600명·평안도 12,947

26) 『世宗實錄』卷87, 世宗 21年 12月 4日 戊寅.

27) 세조 5년(1459) 번상하는 시위패 가운데 말이 있는 사람은 正騎兵·말이 없는 사람은 正步兵으로 구분한 다음, 이 모두를 正兵으로 호칭하였다. 그 이후 세조 10년(1464)에 영진군과 수성군까지 정병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양한 지방군들이 하나의 정병으로 통일되었다. 일반 농민은 정병과 수군 가운데 하나에만 속하면 되었고, 정병 대상자는 營鎮 赴防과 番上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었다(『世祖實錄』卷18, 世祖 5年 11月 1日 己卯; 『世祖實錄』卷34, 世祖 10年 9月 20日 庚午).

명·영안도 5,737명)이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성종대 지역별 정병 분포 상황

	유방 정병	유방 정병 (4교대)	변상 정병 대상자	변상 정병 (8교대)	자체 부방 (土兵)	총 군액
충청도	4,500	1,125	8,000	1,000		12,500
전라도	6,500	1,625	12,151	1,058		18,651
경상도	12,000	3,000	3,122	390		15,122
강원도	600	150	824	103		1,424
황해도	1,600	400	1,482	185		3,082
京中			448	56		448
경기			1,594	199		1,594
평안도					12,947	12,947
영안도					5,737	5,737
개성부					600	600
합계	25,200	6,300	27,621	2,991	19,284	72,105

출처 : 『成宗實錄』 卷59, 6年 9月 10日 丙辰.

토병이 자체 부방하는 평안도·영안도·개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정병 총수는 약 52,8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방정병이 25,200명·변상정병은 27,621명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변상정병이 약 2,000명 정도 더 많아 보이나, 유방정병은 1년에 4번 부방하였고 변상정병은 8번 부방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역병은 유방정병이 훨씬 많았다. 유방정병의 입역병은 6,300명이었고, 변상정병의 입역병은 약 3,400명이었다. 한편 북쪽개성부 600명의 토병은 전 인원이 本府를 巡緝하였고, 평안도 12,947명·영안도 5,737명의 토병은 전 인원이 자신의 道에 부방하였다. 이 가운데 충청도의 유방정병은 4,500명이고, 변상정병은 8,000명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다음으로 많은 군액이었다.

그런데 평안도·영안도의 병력은 18,684명으로 하삼도 유방정병(23,000명)보다 약 4,300명 정도 적었는데, 이것은 남방의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더욱이 대부분의 수군이 주로 하삼도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15~16세기 국방정책은 防胡보다는 禦倭에 치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충청도 역시 조선전기 어왜를 중심으로 한 국토방위전략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렇듯 임진왜란 이전 유방정병과 변상정병만으로도만 구분되어 운영되었던 조선의 지방군의 병종은 양란을 거치면서 그 종류와 운영방식이 복잡다단해졌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의 兵制는 『經國大典』의 舊制와 임란 이후 添設된 新制가 있는데, 신제는 雜設名色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한 柳馨遠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sup>29)</sup>

우선 조선후기 지방군은 크게 ①감영군, ②병영군, ③진영군, ④산성 및 기타 군사 등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감영군의 경우 총 16개의 병종(충청도 5개·전라도 5개·경상도 6개·강원도 5개·황해도 6개·평안도 7개·함경도 7개 등)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총 군병 수는 약 52,160명 정도였다. 다음으로 병영군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좌·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남·북도에 약 30개의 병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군액은 약 71,124여 명이었다. 진영군은 전국 46개의 진영 속에 평균 5~6개의 병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군액은 약 143,313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산성 및 기타 군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총 군액은 약 99,946명이었다.<sup>30)</sup>

## 2. 아병, 마병, 표하군의 성격

충청도 지방군의 종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크게 감영군, 병영군, 진영군으로 구분되었으며, 간 군대 안에 속오군, 아병, 마병, 표하군 등

28) 유동호·이석린, 2014, 앞의 논문, 196~198쪽.

29) 柳馨遠, 『礮溪隨錄』 卷21, 兵制 諸色軍士.

30) 유동호·이석린, 2014, 앞의 논문, 198~203쪽.

의 병종이 존재하였다. 조선후기 충청도 지방군의 병종별 군액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조선후기 충청도 지방군 병종과 군액

감영군		병영군		진영군	
馬兵	200	馬兵	700	馬兵	2,600
束伍軍	1,900	親牙兵	1,000	束伍軍	13,500
親牙兵	2,000	標下軍	342	標下軍	1,516
標下軍	634	新選牙兵	1,200		
別武士	360				
계	5,094	계	3,242	계	17,616

출처 : 『增補文獻備考』 券118·119, 兵考 州郡兵.

조선후기 충청도 지방군은 군사지휘본부의 역할을 하였던 주진(감·병영)군보다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5개 진영군의 군액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감·병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종은 각각 총 군액에서 각각 약 30%(2,000명), 약 68%(2,200명)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병이었다. 반면 진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병종은 진영의 총 군액에서 약 76%(13,500명)를 차지하였던 속오군이였다. 즉 감·병영군의 핵심 병종이 아병이었던 것에 반해, 진영의 핵심 병종은 속오군이었던 것이다.

속오군은 충청도 총 군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점은 조선후기 지방군제 개편이 속오군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눈여겨 볼 점은 아병·마병·표하군 등의 병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아병은 원래 각 단위부대 지휘관에 소속된 직할병력을 의미했다. 그러다가 현종 11년(1670)에 인원을 증원하고, 파총 및 초관을 따로 설치하여 정식 직제에 편입시켰다.<sup>31)</sup> 그 이유는 조선후기 지방군제에서

31) 『增補文獻備考』 兵考 制置.

는 지휘체계에서 소외되었던 감사의 직할병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조선후기 지방군 지휘체계는 ‘감사-병사-영장’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감사는 병사에 대한 지휘권을 지니지만, 實戰 시 실질적 군사지휘권은 武官인 병사에게 있었다. 이 때문에 감사는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병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사료에 잘 드러난다.

병사는 戰場으로 속오를 거느리고, 감사는 兵士를 절제하여 다만 조령만을 전달한다 하지만 거느릴 수 있는 군졸이 없어 혹 사변이라도 발생하면 그 몸도 스스로 지키지 못할 것이니, 어찌 수족을 움직이겠는가?<sup>32)</sup>

이렇듯 지휘체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감사는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별도의 병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감사의 직할 병력인 아병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아병은 국방에 있어 중요한 병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의 군제는 급할 때 믿을 것이 속오군과 아병뿐이다’<sup>33)</sup>라는 언급에서 당시 아병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아병도 점차 쌀과 돈을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收布軍으로 변질되고, 급기야는 私奴로만 充定되어 그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사정은 정조 4년(1780) 훈련대장 具善復이 軍政 및 軍備의 폐단을 지적하는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속오군과 아병은 곧 싸움에 나아가는 군졸인데, 모두 良·賤으로 充定하다가 中世이래로 고쳐서 私奴로 團束하였습니다. 均役한 뒤부터 良軍은 단지 1필의 베를 바칠 뿐인데, 사노는 한 해 동안 내내 그 주인에게 사역되고도 쌀을 바치고 操鍊에 나아가며 허다한 雜役에서도 도리어 良役보다 심한 것이 있습니다.<sup>34)</sup>

32) 『承政院日記』 409冊, 肅宗 29年 1月 12日.

33) 『英祖實錄』 卷18, 英祖 4年 7月 13日 壬戌.

마병은 최초 하삼도 지역에서 주요병종으로 설치되었다가 점차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를 통해 충청도 5진영의 구체적인 마병 운영상황을 살펴보자.

<표 8> 충청도 5진영의 마병과 보병 현황

우영(공주) (4,155명)		중영(청주) (4,228명)		좌영(해미) (3,879명)		전영(홍주) (4,395명)		후영(충주) (4,130명)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528 (13%)	3,627 (87%)	714 (17%)	3,514 (83%)	432 (11%)	3,447 (89%)	412 (9%)	3,983 (91%)	617 (15%)	3,513 (85%)

출처 : 『淸營兵制總錄』(奎章閣 4483).

충청도 진영들의 마병 비율은 약 15% 내외였다. 마병의 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은 비중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병을 운용했던 이유는 여진족(後金, 淸)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16세기 말부터 급격히 성장한 여진족은 조선에 큰 위협이 되었는데,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구사하는 기마전술에 대비해야 했다. 특히 후금과의 대결의식을 가지고 정부를 출현시킨 인조대에 하삼도를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 결국 하삼도의 마병 설치 및 운영은 조선후기 국방의 방향이 禦倭에서 防胡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sup>35)</sup> 충청도 지방군의 마병 설치 및 운영도 이러한 국방정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마병의 양성은 보군과는 달리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우선 국가에서 각 군인들에게 말을 지급해 주어야 했다. 또한 마병들에게는 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步軍보다 保人을 1명 더 주어야 했으며, 급료에서도 콩 6~9두를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sup>36)</sup> 여기에 장기간의 평화가

34) 『正祖實錄』 卷9, 正祖 4年 2月 21日 庚午.

35) 김중수, 2003,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 해안, 89~91쪽.

36) 『承政院日記』 125冊, 孝宗 3年 9月 20日 ; 『承政院日記』 270冊, 肅宗 5年

지속되면서 마병의 운영은 점차 부실해졌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지는데, 丁若鏞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당시 상황을 잘 말해준다.

조련하는 날이 될 때마다 雇馬가 사방에서 나오니 먼저 쫓아간 자라야 이를 빌릴 수 있었다. 큰 것이라야 나귀새끼만 하고 작은 것은 쥐만 하였다. 가난한 선비가 기르던 것과 장사꾼이 끌던 것을 모두 군마라 하여 관정으로 끌고 들어오니 그 말이란 코는 찢어지고, 나이 어린 것들이지만 위에서 부르면 아래서 응답하여 점고한다고 한다. 그 안구를 보면 가슴걸이, 안갑, 등자, 목걸이가 모두 없고 절고 움 오르고 굽고 부스럼 나서 차마 바로 볼 수 없는 참상이다 남쪽 적과 북쪽 오랑캐가 내일 쳐들어온다 하여도 이따위 말들로 나가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sup>37)</sup>

표하군은 지방군의 대부분 軍營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營 大將의 手下親兵인 아병과 함께 각 本營에서 상주하였으며,<sup>38)</sup> 혹시 이들에게 배정되었던 保人의 결원이 생긴다면 즉시 충정해 주었다.<sup>39)</sup> 이러한 점으로 보아 표하군은 그 수는 적었으나, 특별예우를 받았던 정예 병력이었던 것 같다.

충청도 中營(청주)의 사례를 통해 표하군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충청도 중영의 표하군은 영장 소속 250명을 비롯하여 좌·중·우부의 千摠 소속 각 24명이 있었고, 각 천총 아래 좌·우 司의 把摠 소속으로 각 26명이 있었다. 아울러 좌·우 別將 소속으로 각 18명이 있었다. 한편 초관에게는 지휘할 編伍軍兵만 있을 뿐, 편이 및 직무를 보좌할 직속 표하군은 배정되지 않았다. 중영의 각 장관 및 장

---

5月 6日.

37) 丁若鏞, 『牧民心書』 兵典 6條 練卒.

38) 육군사관학교 군사연구실, 1968, 『한국 군제사 연구』, 154쪽.

39) 『新補受教輯錄』 戶典 收稅.

교 층에게 배정된 표하군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충청도 中營의 標下軍 내역

직위	표하군병 종류 및 수	합계
營將 (1명)	軍務兵房 1, 討捕兵房 1, 知穀官 1(隨率 2), 旗鼓官 1(隨率 2), 旗牌官 58(隨率 93), 軍務軍官 50, 討捕軍官 30, 前部軍 11	250명
千總 (3명)	旗手 7, 軍牢 2, 哮羅手 1, 輜重 1, 書記 1, 大砲手 1, 馬丁 1, 鼓手 1, 鎗鉞手 1, 鎗手 1, 喇喇手 2, 廚後 1, 瑣吶手 2, 火兵 2	72명
把總 (8명)	旗手 7, 軍牢 2, 哮羅手 1, 廚後 1, 馬丁 1, 書記 1, 鎗手 1, 鼓手 1, 鎗鉞手 1, 瑣吶手 2, 輜重 1, 大砲手 1, 火兵 2	208명
別將 (2명)	旗手 4, 軍牢 2, 哮羅手 1, 書記 1, 鎗手 1, 喇喇手 2, 鎗鉞手 1, 馬丁 1, 輜重 1, 廚後 1, 鼓手 1, 火兵 2	36명

출처 : 『淸營兵制總錄』(奎章閣 4483).

장교 층에게 배속되었던 충청도 중영의 표하군의 총액은 566명으로 전체 군액의 약 13%였는데, 충청도 다른 진영들의 전체군액 대비 표하군 비율도 비슷했다. 실제 전영 11.8%, 좌영 13.7%, 우영 12.7%, 후영 14%였다.<sup>40)</sup> 이를 보아 전반적으로 조선후기 각 군영의 표하군 비율은 약 10% 정도였을 것 같다.

아울러 중영 표하군 부대에 배속되었던 세부 병종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영장 표하군 가운데 토포병방 1명과 토포군관 30명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후기의 영장이 토포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진다. 둘째 별장·천총·과총 소속의 표하군은 전투 병력이 아니라 장교층의 편의와 군무를 보좌하기 위해 배속되었던 지원 병력이라는 점이다.

40) 충청도 각 진영의 조직구조는 동일했으며, 표하군병 수는 전영 전체군액 4,534명 중 표하군 537명·좌영 3,879명 중 534명·우영 4,155명 중 531명·후영 4,130명 중 579명이었다(『淸營兵制總錄』, 奎章閣 4483).

哮羅手·大砲手·鼓手·鎗鉞手·錘手·喇喇手·瑣唢手 등은 軍樂手 들었고,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軍牢와 기록을 맡았던 書記는 장교 층의 군무를 보좌하였으며, 밥 짓는 일을 했던 火兵과 廚後는 취사병이였음이 이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중영의 총 군병 4,322명 중 초관들에게 배정되어 있었던 군병 4,228명은 군적 상에만 표기되어 있는 속오군일 가능성이 높으며, 표하군 556명이 실제로 입역하여 진영의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던 실질적인 병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하군은 아병과 더불어 조선 후기 지방군 병종 가운데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병종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sup>41)</sup>

####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 후기 충청도 지방군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기 위해 충청도 방위전략 속에서 군사지휘체계의 변화를 살펴본 뒤, 충청도 주요병종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란 이후 도성방어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남쪽에서 도성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위치하였던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국토방위전략에 따라 충청도 지방군의 편제 및 지휘체계도 개편되었다. 그 결과 진영체제를 기반으로 충청병영(병사) - 5진영(영장) - 54개 속읍(各邑 수령)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확립되었다. 한편 충청도는 5진영 중 4개 진영에 전임영장이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충청도의 속읍들은 전임영장의 지휘를 받았는데, 이러한 모습 또한 당시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 및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충청도 지방군의 주요병종은 속오군, 아병, 마병, 표하군 등이었다. 속오군은 진영의 주력병종이었으며, 아병은 감·병영의 주력병종이었다. 주목할 점은 속오군 못지않게 아병, 마병, 표하군 등도 충청도 지방군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병은

41) 유동호·이석린, 2014, 앞의 논문, 221~224쪽.

지휘체계에서 소외되었던 감사의 별도 병력을 마련해주기 위해 설치되었다가 주요병종으로 확대된 병종이고, 마병은 17세기 이후 북방의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 하삼도를 중심으로 설치된 병종이었다. 그러나 두 병종 모두 오랜 평화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虛泄化되어 갔다. 한편 표하군은 각 장교층에게 배속되었던 직속 군병으로 특별예우를 받았던 정예 병력이었다. 실제 충청도 중영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입역하여 진영의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던 실질적인 병종이었다.

조선후기 충청도 지방군의 군병조직과 지휘체계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국토 방위전략 및 군제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였다. 그 이유는 충청도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지리적 중요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주요병종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사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논문접수 : 2015.10.31, 심사시작 : 2015.11.07, 심사완료 : 2015.11.15]

주제어 : 충청도, 지방군, 지휘체계, 병종, 진영, 속읍, 정병, 속오군, 아병, 마병, 표하군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增補文獻備考』, 『萬機要覽』, 『續大典』, 『新補受教輯錄』, 『三峰集』, 『礪溪隨錄』, 『牧民心書』, 『清營兵制總錄』

- 김용덕, 1989, 『한국 제도사 연구』, 일조각.
- 김종수, 2003,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 혜안.
- 민현구, 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 육군사관학교 군사연구실, 1968, 『한국 군제사 연구』.
- 서태원, 1999,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혜안.
- \_\_\_\_\_, 2004, 「조선후기 해미진영 연구」, 『역사교육』 92.
- \_\_\_\_\_, 2005, 「조선후기 청주진영 연구」, 『역사와 담론』 42.
- 유동호, 2012, 「18~19세기 충청병영의 편제와 재정」, 『군사』 84.
- \_\_\_\_\_, 2014, 「조선후기 청주병영의 군사조직과 재정구조」, 『역사와 담론』 72.
- 유동호·이석린, 2014, 「조선후기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와 군병조직」, 『군사』 93.
- 임선빈, 2003, 「충청감영의 공주 개영과 변천」, 『충청감영 400년』, 충남발전연구원.
- 허선도, 1973·1974, 「제승방략 연구」, 『진단학보』 36·37.
- \_\_\_\_\_, 1974, 「진관체제 복구론 연구」, 『논문집』 5, 국민대.
- \_\_\_\_\_, 1991, 「조선시대의 영장제」, 『한국학논총』 14.